

>>> SK텔레콤 테니스동호회 'S&V'

테니스로 결속력 확대

이동시장 1위에 앞장



S&V는 저변확대와 직원간 유대강화를 위해 비동호회원도 참여할 수 있는 단식 및 복식 전사대회를 상, 하반기에 나눠 개최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만큼 변화무쌍하고 무한한 열정을 요구하는 곳도 드물다. 가입자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사업자들의 의지가 강하고, 끊임없는 기술의 진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가입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SK텔레콤의 테니스 동호회 'S&V(Serve&Volly)'는 직원들 간 우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끊임없는 정열을 창출하기 위해 체력을 키우고 조직력을 다지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SK텔레콤 내 여느 동호회보다 많은 회원 수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호회로 이름을 날리고 있기도 하다.

임원에서 신입사원까지 구성원 다양

SK텔레콤의 테니스 동호회(회장 최연돈)는 지난 1996년에 설립됐다. 처음에는 '테니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모이다가 정식 모임으로 확대해지자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회사 내 동호회로 확대한 것이다.

테니스 동호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노재상 매니저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정적인 연구원들이 운동이라는 동적인 매개체를 통해 모임을 구성한 것이 시발이 됐다"고 소개하고,



전사대회를 마치고 최연소 동호회장이 우승 트로피를 쏘보이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동호회로 공식 탈바꿈하면서 회사로부터 운영자금 및 테니스코트 등의 시설 지원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테니스 동호회의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숫자만 100여명. 이 중 ‘액티브’하게 활약하고 있는 회원도 4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 매니저는 “신입사원부터 임원들까지 구성원이 다양한데다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테니스를 통한 친목도모, 건강증진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 주말마다 정규 모임을 갖고 있으며, 매월 월례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동호회원 중 대학시절에 학생대표로 일본을 다녀온 사람도 있고, 전국대회 참여경험자도 있어서 정규 모임의 트레이닝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노 매니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벤트와 접목한 각종 모임은 테니스 동호회만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노 매니저는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쌀을 경품으로 내세운 테니스 모임을 추진하고 있으며, 봄에는 가정관리를 위해 회원 가족 대상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테니스의 저변 확대를 위해 동호회원뿐 아니라 비동호회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하고 있다.

노 매니저는 “비동호회원도 참여할 수 있는 단식 및 복식 전사대회를 상, 하반기에 각각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목도모 · 건강증진이 목표

무엇보다, 테니스 동호회의 장점은 운동뿐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에서도 동호회원간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이다.

노 매니저는 “본사 건물에 약 20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동호회원이 60명”이라며, “업무상 동호회원끼리 자주 마주치기 때문에 상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 매니저는 “회사라고 하면 계급이 있고 일할 때 조직적인 움직임을 요구받지만, 동호회 내에서는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며, “부장, 대리를 떠나 서로 파트너로서 복식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에서도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다”고 자부했다. 사무환경에서는 느끼기 힘든 ‘정(情)’을 동호회 활동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호회 내부에서 친목도모를 증대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노 매니저는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인 윌블던의 우승자 맞추기 등 작은 이벤트를 통해 직장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축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동호회 내 분위기 때문인지,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임원들도 연 4회 진행되는 전사대회에는 꼭 참여하는 등 애착을 보이고 있다. ㉓

>>> 한국IBM 사진동호회

작품은 아마추어지만 열정만은 ‘프로’



사진동호회가 안면도 출사를 마치고 뒤풀이를 갖고 있다. 왼쪽 뒤쪽이 김홍원 회장.

한국IBM이 최근 몇 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직원들에게 공개한 6층라운지. 커피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 편하게 회의도 진행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최근 문화공간으로 업그레이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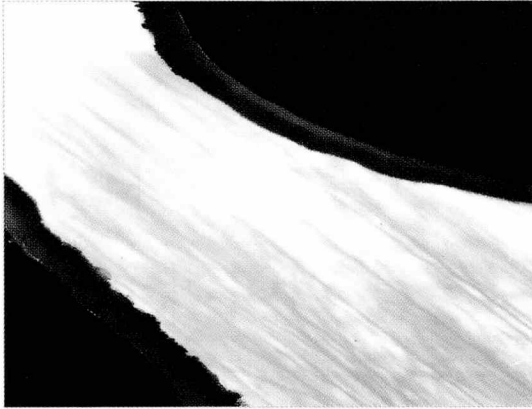
이를 가능케 한 주인공들은 바로 한국IBM의 사진동호회. 한국IBM 창립 40주년을 맞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회원들의 작품 43점을 이 공간에서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가족의 정겨운 모습을 담은 인물사진부터 철교의 야경, 연꽃,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장 등의 모습을 아마추어의 열정으로 담아냈다.

작품들을 감상하다보면 작은 빨간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이 사진들은 판매가 확정된 작품으로,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모두 일괄적으로 작품 당 10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사내 전시 작품 판매는 판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 전액을 회사 내 자원봉사 동호회인 나눔회에 기부해 단순한 전시활동을 좀 더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했다고 한다.

이번 사내 전시회를 열고 있는 한국IBM 사진동호회는 1985년 직원들의 여가 활동에도움을 주기 위해 결성됐다. 50여명 규모의 이 모임은 이끌고 있는 이는 공공기관 제1영업 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홍원 본부장이다.



김홍원 본부장의 '석촌호수'

김 본부장은 한국IBM이 본사 6층 공간의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사진전을 기획했다고 한다.

“처음 이 공간을 보는 순간 전시회를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지금 보니 상당히 만족스러워, 이러한 전시행사를 앞으로 정례화 할 계획입니다”

지난 89년 한국IBM에 입사한 이래 꾸준히 이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 본부장은 사실 사진과 관련한 실력은 아마추어가 아니다. 현재 한국사진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전 등 다수의 전시회를 소화해낸 30년 경력의 중견작가이다.

회장의 ‘내공’ 이 상당하다보니, 상당수의 회원들의 실력 또한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순수한 아마추어 동호회인 만큼, 모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실력이나 장비 등에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김 본부장은 강조한다.

동호회에 처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카메라가 있어야 합니까?”라고 묻지만 김 본부장은 늘 “종류에 관계없이 아무 카메라나 갖고 계시면 됩니다”라고 답한다고 한다.

김 본부장은 “똑딱이를 갖고 있더라도 순수한 아마추어 동호회인 만큼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대한 열정과 업무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출사를 통해 해소하는데 동호회 존재의 의미가 있는 만큼, 장비와 실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동호회가 나름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데는 회사 문화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 사실 처음에는 IBM이 글로벌 기업이지만 한국사회 고유의 장벽 때문에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눈치도 보였다라는 것이 김 본부장의 솔직한 고백이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과거 한국IBM의 토니 로메로 사장에게 사진활동에 관련해 설명하니 “당신이 진정한 IBM 사람”이라는 답변에 자신을 얻어 더욱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한국IBM을 이끌고 있는 이휘성 사장도 이번 사진전을 계기로 동호회에 가입,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약속, 동호회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